

광주 최고 비싼 점포는 '컨버스 충장점' "보증금 3억 월세 1500만원...月 매출 8천만원"

최고 비싼점은 '광주우체국 부지'...평당 3260만원

‘광주에서 가장 비싼 점포는? 한 달 매출은?’

광주시가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지난 30일 발표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광주에서 가장 '비싼 땅'은 동구 충장로 2가 16번지(상업지구) 광주우체국이다. 지난해에 이어 최고지가를 기록한 이 곳의 개별공시지가는 m²당 지난해보다 11만원이 오른 988만원으로 나타났다. 3.3m²(1평) 기준으로 3260만4000원. 그러나 광주우체국을 제외하면 현재 상가가 들어선 곳 중 가장 비싼 곳은 충장로 2가 15-1번지 신발·의류 브랜드 '컨버스'(옛 나라서적) 점포다.

수년 전 광주우체국에 개별공시지가 순위 자리를 내줬지만 상가로서는 여전히 20년 이상 광주에서 최고로 비싼 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m²당 950만원으로 3.3(1평)으로 환산하면 3135만원. 특히 이 땅은 국토부의 표준지로 지정돼 인근 필지의 지가를 계산할 때 표준으로 쓰이기도 한다.

컨버스 점포와 대각선으로 마주한 충장로 1가 31번지의 휴대폰 판매 점포도 m²당 946만원(3.3m²·1평 3121만8000원)으로 컨버스 점포 다음으로 비싼 땅이었다.

그렇다면 광주에서 가장 비싼 점포의 임대료는 얼마일까.

충장로 부동산 업계는 대략 99.9m²(30평) 크기인 컨버스 점포의 보증금이 3억원, 월세는 1500만원 규모로 추

산한다.

지난 2009년 7월 이곳에 문을 연 컨버스 충장로점은 광주지역 8개 컨버스 매장 중 단연 매출이 가장 높은 월평균 7000~8000만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장의 1일 평균 방문객 수는 하루 평균 400여명 가량.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은 컨버스의 주력 매출품목인 기본단화(CTAS Speciality)로, 단화 종류는 4만4000~4만7000원, 발목이 높은 하이넥은 4만7000~5만5000원대다.

특히 계절별로 색을 달리해 나오는 기본화가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에는 '겉기 열풍'에 따라 경량화도 하루 7~8쪽 이상이 나간다. 다른 신발 브랜드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해 10대 후반부터 20대의 젊은층이 방문객의 90%를 차지한다. 유통업계는 이 점포의 경우 신발만 일 평균 50~70쪽이 팔리고, 주말에는 최대 200쪽 이상이 팔릴 것으로 추산했다.

점포 관계자는 "하늘색과 열은 분홍, 열은 연두색의 파스텔톤 신발이 최근 가장 잘 나가고 20대 초반의 여성 고객층이 이 신발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업계는 광주에서 가장 비싼 땅의 실제 거래가를 공시지가보다 3.3m²(1평)당 1500만원 이상 비싼 5000만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광주우체국 사거리 인근의 땅이 가장 비싸게 거래돼 실거래가는 5000만원 정도이며 기타 충장로 2가 인근 4000



광주에서 상가로서는 가장 '비싼 땅'에 자리잡은 동구 충장로 2가 광주우체국 사거리 '컨버스' 점포(옛 나라서적)의 전경. 이 점포의 m²당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 기준 950만원으로 3.3m²(1평) 기준 3135만원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만원, 3가는 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장로의 한 공인중개사는 "20여 전 전인 지난 88년 당시 이 지역 땅값이 가장 비쌀 때 옛 나라서적은 1평당

1억2000만원이 넘는 적도 있었다"며 "이후 IMF를 거치고 충장로가 구도심으로 바뀌면서 점차 땅값이 내려가 현재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박지현의 **살림 레슨**

이상한 일이다.

글 한 줄 써지지 않고 아이의 아토피와 내 알레르기 질환 때문에 들어온 시골생활이 벌써 11년차. 거창하게 무언가 해 보겠다는 뜻도 대단한 귀농을 꿈꿨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한 일이라곤 풀 뜯어 밥 해 먹고, 먹다보니 그 맛을 알았으며 버려진 것들로 집 안을 꾸몄을 뿐인데 부끄럽게도 사람들은 나를 살림 잘하는 여자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보면 시골생활은 나의 삶을 상당히 바꿔 놓았다. 음식배달이 안 되는 탓에 매 끼 해 먹어야 했고 까다로운 내 입맛을 맞추느라 늘 새로운 메뉴를 고민 하다보니 솜씨가 일취월장 했다.

"살림이란 가족을 살리는 일

귀촌 11년 생활의 지혜

웰빙음식·홈 스쿨링 등 소개"

버려진 나뭇가지가 정말 예뻐 웃길이며 커튼 봉을 만들었더니 볼 때마다 흐뭇한 물건이 됐고, 살림살이를 그렇게 재미를 봤다.

사실 도시에서의 나는 그저 '소비벽'이었다. 틈만 나면 백화점이나 마트에 달려갔고 심지어 아이들 교육까지 돈 주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내가 지금은 가까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며 그리고 가족들 앞에 내놓는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제는 그런 일이 노동이 아니라 창작이며 즐거움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덧 사람들은 '웰빙'(well-being)이란 말로 날 불러 주기도 하고 '로하스'(LOHAS)나 '다운시프트'(downshifts·저소득이지만 여유로운 직장생활에서 삶의 만족을 찾는 사람들)족이라며 취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용어와 내가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나에게 '살림'이란 우리 가족을 살리는 밥이며 문화며 경제다. 내 밥을 먹고 딸아이의 심한 아

귀농·귀촌이 부쩍 늘었다. '로하스'(LOHAS), '다운 시프트족'(Downshift)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광주일보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올 연말까지 귀촌 11년을 맞은 박지현의 '살림레슨'을 주 1회 연재한다. 그가 전하는 '살림'이 독자에게도 삶의 여유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란다.

토피는 나왔으며 나 역시 알레르기 질환이 좋아졌다. 내 남편은 고기와 술 식단에서 자연스레 채식 위주로 입맛이 바뀌더니 몸무게를 10kg 이상 줄였다.

그것뿐인가? 별이 나는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여름밤이며 장작불 피워 전어를 구워 먹는 가을 날, 아이들과 마당 공연을 즐기노라면 '사는 게 이럴 거지'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렇게 마음을 비워줄까? 이곳에 들어오고 난 후론 더 이상 물건들을 사들이지 않았다. 마당과 앞산에 놀 것 천지이니 많은 장난감도 필요 없고 나 역시 시골에 '짱' 딱혀 있으니 견물생심할 일도, 비교 대상도 없으니 욕구도 일지 않았다.

정 보러 자주 마트에 나가지 않아도 어지간한 것은 텃밭이나 산 혹은 이웃집에서 해결했고 심심한 '뜻'의 맛을 알게 된 후론 사서 먹는 것의 '심심함'을 견딜 수 없어 결국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돈 한 톨 없어도 언제든 밥걱정은 없으니 무언가 쪼들리고 허덕이던 도시에서의 삶이 아련한 옛일 같아졌다.

영어로 '경제'(Economy)란 말은 그리스어로 집을 나타내는 'oikos'와 관리를 뜻하는 'nomia'를 합친 '오이코노미아'(oikonomia)가 그 어원으로, 바로 '집안 살림'이라는 의미다. 나 역시 살림이 경제의 시작이며 또 경제의 끝이라 생각하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살림 법이지만 앞으로 그 즐거운 기록을 하나씩 모아 보겠다. 돈 들이지 않고, 맛있고 아름다운 음식이야기부터 재미있는 홈 스쿨링 그리고 소소한 자연인테리어도 소개할 예정이다.

내게 살림이란 '살리는 일'이다. 가족을 살리려다 보니 자연스레 건강해졌으며 마음까지 튼튼해졌다. 살림 초보자라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으며 '돈 안 드는 만들기'가 예쁘기까지 하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뿐만인가? 신기하게도 일인데도 즐겁다.

▲박지현(45)

전남대 국문학 전공. 방송작가. 귀촌 11년째. '담양댁의 열두 달 살림' 출간.

저축銀 PF 대출 고강도 점검

173개 사업장 현장조사...4개 등급으로 분류

저축은행의 정상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고강도 점검이 시작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달 말 착수한 저축은행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173개 정상 사업장을 따로 분류, 해당 사업장에는 서면과 현장조사를 병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대출은 현재

여신건전성 분류 기준상 '정상' 또는 '요주의'에 해당하는 정상 여신이다.

당국은 현장 조사를 거쳐 ▲정상 ▲보통(사업성은 좋지만 사업진행에 일부 차질을 겪는 곳) ▲부실우려(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 ▲부실(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 등 4개 등급으로 PF 대출을 나눌 방침이다.

과 경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면 충당금 적립률이 30.0%로 훌쩍 높아지기 때문이다.

당국은 부실 우려가 있거나 이미 부실해졌다고 평가된 PF 대출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 기금 등을 통해 모두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캠코는 3년 안에 부실채권을 정리 하되, 해당 저축은행이 공정가격으로 되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하지만 업계에선 연간(2010년7월~2011년6월) 결산을 앞두고 금감원이 기존의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벌여 자칫 결산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연필뉴스



여름밤 쿨~하게 보내는 방법

성큼 다가온 더위에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1일 8층 휴폰터 매장에서 다양한 여름이불 상품을 선보였다. 여름이불 소재로 주로 많이 쓰이는 레이온은 몸에 달라붙지 않고 산뜻한 느낌을 제공해 여름이불로 인기가 많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비새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빌라·공장의 희소식 국내최초 특허 제 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완벽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밀리도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공장직영 / 완벽한시공 / 확실한A/S 보장, 전국 최다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능칼라강판지붕개량 061) 335-8842, 010-4024-4005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디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